한중수교30주년 30th 1992-2022

2022 다(多)가치포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다시뛰는 공정도시 서울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제1차 토론회 : 청년 특별세션

한·중 MZ세대, 연결과 연대의 새 지평을 향하여

진 행	**박동찬** (이주인권활동가)
발 제	**오 연**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 조교수)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토 론	**여 신** (대진대 중국학과 초빙교수) **김천웅**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수료)

2022.4.30.(토) 14:00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소강당

YouTube **'구로문화재단'** 채널
*본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주최 다가치포럼 주관 구로문화재단 Southwest Seoul Global Center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西南首尔国际中心

후원 (사)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LC TECH KOREA

협찬 (사)조각보 민들레예술단 민들레사랑회 (사)이주민센터친구

목 차

01 인 사 09

02 행사순서 13

03 주제발표 15

오 연,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 조교수 17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29

04 주제토론 45

여 신, 대진대 중국학과 초빙교수 46
김천웅,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수료 50

01
2022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인사말

개회사

최현호
다가치포럼
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 최현호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며 양국 관계에 중요한 한 해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 등 여러 요인으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반 이상은 한·중 양국 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작게는 생활필수품의 가격변화부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자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우리의 미래이며 곧 세대의 주축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MZ세대의 어려움에 있어 한국이나 중국은 비슷한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난 등은 공통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중국 MZ세대 청년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연대하며 공통 문제점을 이겨 나가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한·중 MZ세대의 연대에서 중국 동포 MZ세대의 역할 또한 기대되며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 최 현 호

02
2022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행사순서

2022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3:30 - 14:00	참석자 등록
14:00 - 14:15	개회 및 사회자 인사
14:15 - 14:20	포럼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
14:20 - 14:50	주제발표 ①
14:50 - 15:20	주제발표 ②
15:20 - 16:5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16:50 -	폐회

- 개회사 최현호 (다가치포럼 운영위원)
- 환영사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 축 사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윤건영 (구로을 국회의원)
- 폐회사 김동훈 (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장)

- 사 회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좌 장 박동찬 (이주인권활동가)
- 발 제 오 연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 조교수)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 토 론 여 신 (대진대 중국학과 초빙교수)
  김천웅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수료)

03
2022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주제발표

한·중 MZ세대의 분노 읽기 :
하위문화와 내셔널리즘의 상호작용

오 연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 조교수

1. 들어가며

MZ세대가 요즘 여러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소비시장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형도 변화에도 점점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늘어가고 있는 한·중문화갈등에 주목하면서 중국 MZ세대 관련된 몇 가지 특별한 현상을 이 발표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애국주의의 팬덤화다. 이것은 중국 국내에서 '팬덤 민족주의(fandom nationalism)'로 불리며, 대표적인 예로 아중오빠(阿中哥哥)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중(中)자 앞에 친밀함을 나타내는 아(阿)를 붙여 인격체로 만들고, 열광적인 여성 팬이 좋아하는 스타를 부르듯 오빠라 지칭하는 것이다. 국가가 일종의 아이돌이고, 국민이 팬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아중오빠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중오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라며 마스크 등 구호물자를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짧은 기간 동안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아이돌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다.

둘째로, 인터넷에서 유아화(Infantilization)된 호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층에 돌기가 많아서 중국어로 모자(冠) 모양의 바이러스, 즉 신관병독(新冠病毒)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에서는 똑같이 친근감을 준 阿(아)를 붙어서 '阿冠(아관)'이라는 지칭이 나왔다. 무서운 존재인 바이러스에 친구의 애칭에 사용하는 '아'를 붙여서 오히려 귀여운 느낌을 준다. 이러한 유아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없앨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타자화가 유아화(infantilization)를 동반[1]하는 경우가 있다. 즉 유아화를 통해 대중을 타자화할 수 있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복종 및 순종을 강조하게 된다.

세 번째 특징은 사이버 폭력이다.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혹은 중국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아중오빠를 지키겠다는 혹은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온라인 공격을 자행한다. 이들은 민족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자발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러한 캐릭터 팬덤화, 유아화 표현, 사이버 집단성은 바로 중국의 하위문화인 이차원문화[2]의 특징이기도 하다.

1) 김현경, 『사람, 장소,환대』문학과지성사, 2015, 141쪽.
2) ACG를 소비하는 집단이 갖는 독특한 문화.

2. 중국의 하위문화인 이차원문화

중국에서 '2차원'(二次元)이라는 단어는 일본어 '2次元(니지겐, にじげん)'의 한자표현이다. 〈2015년 중국 2차원상업보고(2015年中国二次元行业报告)〉에서는 2차원을 'ACGN을 주요 매체로 하는, 평면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집단의 가치관과 이념'[3]으로 공식적으로 정의했다. ACGN이란 애니메이션(Animation), 만화(Comic), 게임(Game), 소설(Novel)의 약자로, 줄여서 ACG라고도 한다. 이러한 ACG를 소비하는 집단이 갖는 독특한 문화는 이차원문화로 볼 수 있다. ACG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ACG 문화의 애호가들을 오타쿠(otaku)라고 부른다. 중국의 이차원문화는 일본 오타쿠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중국의 이차원문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중심으로 발달한 하위문화인 오타쿠 문화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하위문화는 1960년대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오타쿠 문화를 탄생시켰고, 초국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모리카와 가이치로는 오타쿠의 출현 배경에는 일본 고도성장이라는 꿈의 상실이 있다고 파악한다. "그들은 성격상 과학을 신봉하고 큰 꿈을 품었어야 하는 소년들이다. 그렇기에 '미래'의 상실로 인해 받은 타격이 한층 더 컸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따위의 취미 속으로 퇴행해 갔던 것이다."[4] 그들이 퇴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하나는, 1980년대 거대 산업자본이 사람들의 외향적 상승 지향을 부채질한 탓이다. 그들은 '외향적인 상승 지향'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붙여진 딱지가 바로 오타쿠란 이름인 것이다.

오타쿠라는 단어는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으며, 지금도 그 단어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빠져 있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가상의 캐릭터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어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었지만, 오타쿠의 한자 표현인 '御宅'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오타쿠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2차원'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라고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만화를 중심으로 한 이차원문화는 평면 세계를 이르는 것으로, 허구의 세계, 만들어진 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이차원문화'는 일본 오타쿠 문화가 중국 현지화 과정 속에 파생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에 빠진 오타쿠 문화를 지칭하지만, 지금은 청소년문화, 팬덤문화로 보다 범주가 넓어졌다.

3) 艾瑞咨询, 『2015年中国二次元行业报告』, 2015, 15쪽.
4) 森川嘉一朗, 『趣都の誕生』, 幻冬社, 2003, 234쪽.

3. 이차원문화의 향유자: 바링허우, 쥬링허우

MZ세대는 1979년부터 1995년생까지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Z세대를 합친 말이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 약 1,797만 명으로 인구의 약 34.7%를 차지한다.

중국에서도 MZ세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링허우'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즉 세대를 10년 단위로 나눠서 보고, 세대의 개념을 같은 시기에 출생한 집단으로 파악한다. 한국 언론보도나 학술연구에 자주 등장한 바링허우와 쥬링허우는 각각 1980년과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을 뜻한다. 중국은 '1가구 1자녀' 산아제한정책은 1979년에 내놓았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태어난 세대가 바링허우다. 산아제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바링허우와 쥬링허우는 약 4억 4,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6%를 차지한다.

성장환경이 다르지만, 한국의 MZ세대와 중국의 바링허우, 쥬링허우는 비슷한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도 1980년 이후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한 자녀에게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바링허우, 쥬링허우는 개혁개방과 산아제한정책으로 외동아들, 외동딸로 태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혜택과 부모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자랐다. 과거 X세대나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온전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는데, 이들은 남들이 볼 때 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소소한 보통 정서와 다소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도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떳떳하게 밝히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단단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대라도 할 수 있다.

대학 정원도 늘어나면서 대학진학 비율은 전 세대보다 훨씬 높고 고학력자들도 많아졌다. 또한 미래를 가꾸어가는 방식은 이전 세대가 해온 방법에 기대거나 기성세대나 학교가 가르쳐준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고 설명된다. 사업에 대한 열망도 기존 세대에 비해 높다. 유학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경험하고 적극 교류하며 쌓은 문화적 감수성이 강하고, 국가의 고도성장을 보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4. 콘텐츠로 보는 이차원문화

이차원문화의 특징, 즉 국가와 팬덤의 연결성을 잘 보여준 대표 웹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 해 그 토끼 그 일들〉이다. 〈그 해 그 토끼 그 일들〉은 파란색 별에 위치한 꽃을 심는 집(꽃 농장)의 이야기다. 여기서 파란색 별은 지구를 상징하고, '꽃을 심는 집', 즉 '종화가(种花家)'라고 불리는 공간은 '중화인민공화국(中华家)'의 발음과 비슷해 중국을 상징한다. 스토리 전체가 이런 해음(谐音)문화[5]와 색채상징을 많이 활용했다. 애니메이션은 꽃 농장에서 살고 있는 토끼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다른 동물들과 벌이는 일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물 이야기 속에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걸어온 고난과 분투의 길을 서술하고 있다. 캐릭터 간의 이야기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의 국내외 군사·외교의 굵직한 사건을 암시하고 조명하며 수많은 '토끼 팬덤'을 형성하였다. 서사와 플랫폼 두 가지 면에서 국가와 팬덤의 연결 고리와 상호작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 및 국제관계를 다루는 매우 주선율적인 내용이지만 캐릭터 팬덤화, 표현 유아화 등 이차원문화 특유의 요소를 많이 활용하였다. 특히 각 국가를 의인화, 동물화 등의 기법으로 캐릭터를 조성해 이를 유아화된 대사, 지역 사투리, 인터넷 유행어 등을 통해 친숙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동물 간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역사 및 국제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항대립적인 서사구조를 통해 복잡한 국제관계를 단순화시켰다. 수용자들은 이런 서사를 통해 주요인물인 토끼를 지지하고 지키고자 한다. 서사의 교차점에 나온 중국, 그리고 중국인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면서 수용자는 토끼의 팬이 되고, 토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토끼 팬덤, 즉 애국주의 팬덤이 형성할 수 있는 원인은 서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역할도 크다. 이차원문화의 대표적인 탄막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2차원의 특징인 집단성을 강조시킨다. 일반 시청경험과 다르게, '탄막'기능이 첨가된 영상체험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댓글이 시공간을 넘어, 수용자들 사이에 '공시성의 관계'를 구축하며, 일종의 상호작용 의례를 조성한다.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는 캐릭터를 통해 국가와 개인을 더 일체화가 된다. 무의식적으로 상상의 공동체가 된다. 시청자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탄막을 확인하고 또 탄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함께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자아낼 수 있다. 이 현장은 바로 중국의 역사, 현재와 미래다. 그리고 끊임없이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고 비참여자를 찾아내고 '정의로운 분노'를 표현한다. 이런 분노는 사이버폭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5) 해음이란 ' 동음자' , 즉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이용해 서로의 뜻을 연결하여 연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이차원문화를 통해 본 청년세대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 또한 젊은이들의 절충적 스타일 증가로 인해 하위문화의 정체성은 다양한 경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경계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러한 하위문화에서 경계의 복합성과 유동성은 경계의 구분과 분류에 대한 논의를 넘어 흐릿한 경계, 즉 복합적인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흐름의 공간은 흐름을 통해 작동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회적 실천의 물질적 조직이다.[6] 중국의 경우 최근에 다수가 공유하는 주류문화와 다른 소수집단 혹은 비주류 집단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하위문화가 애국주의와 연결되고 있다. 그동안 주류 이데올로기 가치의 선전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는 청년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가권력이 준비한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수용자'[7]형 관객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능동적 참여자'가 많아져 이들은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팬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민족주의 성향 게시물을 만들어 공유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뜨린다. 이들을 '인터넷 전사'라 부른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에 나타난 하위문화의 자발성을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클리포드 기어츠는 '문화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한 글에서 "두 가지 접근법"으로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해 서술하였다. 하나는 이익이론(interest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긴장이론(strain theory)이다. 이익이론에서는 이데올로기를 가면이자 무기로 간주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한 보편적인 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인간은 이를 통해 권력을 추구한다. 긴장이론에서 이데올로기는 징후이자 치료로 간주되고, 사회심리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만성적인 노력을 배경으로 삼으며, 인간은 이를 통해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그는 이익이론은 마르크스 의의 전통에 따라 완성되었으며, 긴장이론은 사회의 만성적인 불통합 상태를 전제로 한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8] 하위문화와 주류문화의 상호작용은 이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문화는 더 많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얻기 위해 2차원적 표현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이차원문화를 인정하고 영광을 부여한다. 하위문화는 일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양도하면서 공인된 권력, 즉 국가권력으로서 상징권력을 구성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것은 '이익이론'에 적합하다. 이때 이차원문화의 소속원들은 사회적 존재가

6) Manuel Castelss, 김묵한 등 역,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2014, 531쪽.
7) 임대근, 『동시대 중국영화의 ' 이데올로기 사슬' 』, 『중국영화포럼 2021-1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07. 5쪽.
8) Clifford Geertz,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글방, 1998, 240-247쪽.

치를 인정받기 위해 주류문화와 손을 잡아 새로운 외부세계를 찾았다. 애국주의는 하나의 정서보다 하나의 구별기호(signes distinctifsf)[9]가 되었다. 이 구별기호를 가지고 구별짓기하고 '정의로운 분노'를 발현하면서 다른 나라와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아이돌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이버세계에서 국가를 지키고자 한다. 이런 행위를 통해 사회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것은 '긴장이론'에 해당한다.

6. 청년세대의 불안과 분노

일본의 오타쿠 문화와 중국의 이차원문화는 범주가 다르지만, 이런 문화가 생기는 배경은 비슷하다. 사회유동화의 영향이 크다. 사회유동화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오타쿠가 되어 그 생태 그대로 기존의 취업 방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새로운 빈곤층이 되어 갔다. 사회의 어디쯤에 자기를 자리매김해야 좋을지 혹은 어디를 지향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젊은 층의 목표 상실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유동화의 진행은 새로운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청년 실업 문제도 확대된다. 하지만 사회유동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추진된 사회 변동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사람들은 적응하는 과정 속에 점점 불만을 쌓아가고 '자기방위'라는 방향성을 선택한다. 자기방위의 방식은 바로 '팬덤'이다. 이런 '팬덤 민족주의'는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10]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팬덤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팬덤이고, 한국은 아이돌 스타, 혹은 유명인에 대한 팬덤이 다시 국가와 연결된다는 차이를 보인다. 팬덤은 인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인정에서 시작한다는 근거는 이미 헤겔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표현된 바 있다. 자기 동일화를 통한 대리만족이 가능하기 때문[11]이라는 것이다. 『예나 체계기획 III』에 따르면 그 근거는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정신적인 인정함 자체"[12]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팬덤 민족주의도 같은 맥락으로 인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의 정체성을 국가정체성과 동일화하며, 인터넷에서 중국에 관련된 담론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수집한다. 아이돌인 '아중오빠'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이 있으면 무리를 이루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공격하고, 다

9)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5,
10) 다카하라 모토아키,정호석 역, 「한· 중일 인터넷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2007.
11) 김환표, 「팬덤의 역사: ' 인정투쟁' 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인가(4)」, 「인물과 사상」제3호, 2013, 183-184쪽.
12)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서정혁 역, 『예나 체계기획 III』, 아카넷, 2012, 213쪽.

양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덕질'을 한다. 이런 행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상실감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팬덤 민족주의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군중심리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른 사람들과 일체화되어 참가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이 없어진다. 또한 무책임성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익명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발언하기보다 상상과 억측으로 판단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되는 경향도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사이버폭력에는 벤야민과 지젝의 '신적 폭력'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폭력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분노'처럼 아무런 목적도 전제하지 않은 폭발적 행위다.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행위이자 하나의 '발현(Manifestation)'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적 폭력은 단적으로 말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즉 사회로부터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봉기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초법적 인정투쟁이자 동시에 신적 폭력을 감행한다.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또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즉 반한 정서보다는 단지 개인 불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사실은 대중적이지 않고 소수사람들만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이처럼 국내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터인 불안감의 '적 찾아내기'가,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향해짐으로써 반일이나 혐한, 혐중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한·중일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불안감과 두려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가 혐오를 낳으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 있다. "혐오는 만성적 불안과 우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특정의 의인화된 집단에서 찾는 스토리텔링의 산물이다."

7. 한·중 MZ세대 간의 대화

한·중 비교 연구하면서, 또 학생을 만나면서 한·중 MZ세대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하였다. 한국에서『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와 같은 책이 많은 젊은이의 공감을 받을 때,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실과 좌절을 의미하는 '상(丧)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꽤나 동질적인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躺平(탕핑)'이라는 표현이 젊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사용한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드러누워서 'N포 세대'가 되겠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들 세대는 아직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躺平(탕핑)', '헬조선'과 관련한 담론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쟁점화된 것도 바로 이들 세대가 겪는 사회심리적 고통을 함께 공감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언표라 할 수 있다.

한·중 청년들 모두, 마치 피로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두 나라의 청년들은 비슷한 희로애락을 안고 있다. 그래서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힘이 되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실제로도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 인기 많은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환영을 받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들은 한국에서도 새로운 유행이 된다. 이렇게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주는 과정 속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대화성일 것이다. 바흐친은 "대화는 언어생활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대화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적 진실은 상호 간의 대화적인 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 모든 주체는 화자이면서 청자이기도 하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견해는 관찰자 상호 간 관점의 자율성을 통해 표명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대화성의 대화란 '나'와 '타자'의 대화가 아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 동등한 주체로서의 대화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할 때 무의식적으로 주체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핵심 대상이나 가치로 간주하지 못하고, 그저 '타자로서의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동양이 서양의 타자로 재현되어 온 것처럼, 동양 내부에서 중국을 타자화하거나 혹은 한국을 타자화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관점이 아닐 것이다.

사실 가장 큰 타자는 우리의 내면에 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다양성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다양성도 환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내면 속 타자와의 대화로부터 출발하여 한국과 중국 청년 사이에서도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Clifford Geertz,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글방, 1998.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서정혁 역, 『예나 체계기획 III』, 아카넷, 2012.

Manuel Castelss, 김묵한 등 역,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2014.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5.

高原基彰, 정호석 역, 「한·중일 인터넷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2007.

森川嘉一朗 , 『趣都の誕生』,幻冬社 , 2003.

김현경, 「사람, 장소,환대」,문학과지성사, 2015.

김환표, 「팬덤의 역사: '인정투쟁'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인가(4)」, 「인물과 사상」제3호, 2013.

김내훈, 「급진의 20대」, 서해문집, 2022.

임대근, 「동시대 중국영화의 '이데올로기 사슬'」, 「중국영화포럼 2021-1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21.

'혐중'의 시대, 한·중 청년의 연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최근 혐중 여론의 고조 양상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상의 반중 감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되었다는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인터넷 게임 등 하위문화 일각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던 혐중적이고 인종주의적 발화들이 예사롭지 않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2021년 5월, 유력 주간지 〈시사IN〉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인의 對중국 정서는 크게 하락하였고, 2021년 5월에는 마침내 북한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나 '진보' 혹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를 드러냈는데,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가 진보와 보수에 따라 뚜렷하게 나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20대의 긍정 의견은 15%에 불과했다.[1)]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14개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에서도 2002년 긍정 66%, 부정 31%를 보였던 한국인의 대(對)중국 정서는 2021년에 이르러 긍정 24%, 부정 75%로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2010년대 초까지는 긍정 여론이 더 높았으나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 배치와 '한한령(限韩令)' 논란 등을 계기로 급속도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02년 긍정 55%, 부정 42%였던 것이 2020년에는 긍정 9%, 부정 86%으로 치달았다.[2)] 2021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위탁해 발표한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등 인근 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양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표현 방식에서도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인터넷 게임 문화나 유튜브 영상, 중국 관련 기사 등의 반응을 보면 극단적 견해를 스스럼없이 표출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파편적 인식 속 중국인의 모습은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고, 비위생적이며, 패권적이고 맹목적인 애국주의자의 모습으로 일반화된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중국 내 사회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근거를 결여한 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개개인의 발화 의도나 생각을 재단한다. 중국 사회에 이렇게나 큰 문제를 안고 있으니, 중국 사회와 중국인 혹은 중국 출신 이주민 개개인에 대한 비난과 혐오, 욕설이 모두 정당한 행위가 된다는 식이다.[4)]

---

1) 이오성, '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 <시사IN>, 717호, 2021.06.17.
2) LAURA SILVER, KAT DEVLIN AND CHRISTINE HUANG, ' Large Majorities Say China Does Not Respect the Personal Freedoms of Its People' , Pew Research Center, 2021.06.30.
3) 김용호· 김윤호, '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인식의 지평 확대' , 아시아 브리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01.10.

반중 정서가 서구 사회에 친서방 국가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미국에서 반중 정서는 아시아인 전반에 대한 혐오 정서와 인종주의적 폭력으로 표출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미국 내 아시안 혐오 범죄는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124퍼센트가 증가한데 이어, 2021년에는 339%가 증가해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5] 한국에서는 이런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혐오 범죄가 부각되지는 않지만,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만큼 배제나 차별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6]

외부 요인 : 미·중 대결 정세의 심화

이처럼 민족주의적 혐중 정서가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원인들이 중첩되어 반중 감정이 심화되었다고 보지만, 시각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 둔다. 우선 가장 널리 공유하는 관점은 시진핑 집권기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당-국가가 주도하는 애국주의 노선이 국제사회에서 반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 미·중 갈등의 고조 속에서 사드 배치 문제나 군비 경쟁 등 군사적 쟁점이 심화됐다는 사실 등 외부적인 요인을 강조한다.[7]

언론과 전문가들도 2016년 이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의 한한령으로 이어지는 논란이 대중적으로 회자된 것, 이와 거의 동시에 중국발 황사·초미세먼지 문제가 대중의 생활 감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 2019년 이후 홍콩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운동과 2020년 초 코로나19의 발생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8] 실제 〈시사IN〉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기한 이슈들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런 요인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소국 알리바이는 불가역적인 외생변수에 대한 정치적 무기력감을 증

4) 하남석· 김명준· 김준호, ' 한국 청년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 , 현대중국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5) Kimmy Yam, ' Anti-Asian hate crimes increased 339 percent nationwide last year, report says' , NBC
6) 오수진, ' [아시안 혐오] ① 경제력으로 줄 세우고 혐중 당연시' , 연합뉴스, 2021.05.19.
7) 박민희, ' 한국과 일본 반중정서의 양상과 원인 : 사회· 문화· 역사' , 현대중국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8)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경(2020)은 최근 들어 한국 내 반중 감정을 고조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논하면서 단순히 그 감염원이 우한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것은 아님을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오히려 한국 내 보수진영 같은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전부터 문재인 정부를 ' 친중' 이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반중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에 의도적으로 기여한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반중 감정의 고조는 외부 요인이기보다는 내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정치그룹 간 쟁투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한 음모론이 대중들에게 소구되는 객관적인 현실 배경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폭시키며, 한쪽을 악마화할 위험이 크다. 또, 외부 요인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부 요인의 영향력을 부정하거나 소홀하게 인식할 위험이 있다.

2011년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전환되고, 미국과 서구 선진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와 중국·러시아 등 권위적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권적 국제주의가 대결하는 양상이 심화되자, 각국 정치세력들은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 입장을 놓고 첨예하게 분화·대립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우크라이나 등 서구식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인접국은 그런 분열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친중이냐 친미냐' 혹은 '친러냐 친미냐'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 쟁투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정치 당파가 명확하게 '친중' 혹은 '친미'의 입장을 갖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는 실제 성격보다는 훨씬 강조되어 있다.

흔히 한국 정치에서 '친중'으로 묘사되는 민주당의 대외 정책에 대한 노선적 성격은 친중보다는 경제 정책에서는 서구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체계에 조응하고, 외교 노선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통해 실리적인 중견국 균형외교를 지향할 뿐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한국 주류 정치의 흐름과 국민의힘 식의 전통적인 친미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물론 '균형 외교'로 상징되는 역대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을 다소 지연시킬지언정, 한반도 숙명론이나 강대국 결정론의 문제설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제도정치 세력을 '친중' 혹은 '친미'로 대별시키는 관점은 노선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확하다.

사실 그간 한·중 양국은 경제 관계에 있어서 정치·외교적으로는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경분리(政經分離)'의 인식을 공유해왔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이런 분리 인식을 불가능케 했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내지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의 발전 또는 팽창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컨센서스(consensus)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지배 엘리트 전반에 형성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일대 충격을 가했는데,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런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에서 발을 뺀다는 점을 제외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측면에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선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니 트럼프 시기 시작된 미·중 간 대결을 특수하고 돌출적인 것으로 여겼던 기존의 해석은 부정확하다. 사드 배치나 미사일 사거리, ICBM 기술 개발 등 사안은 이러한 국제질서 변동의 결과이자 표면적 요인일 뿐,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위기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일국적 헤게모니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국제 정치적 모순이 국내 정치에 강하게 개입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내부 요인 : 경제 위기

반중 감정의 외부적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이뤄져 왔지만, 이에 반해 반중 감정의 내생적 요인에 대한 고찰은 과소한 편이다. 대중국 감정의 세대적 분기가 가시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에서 찾는 게 합당해 보인다. 왜 유독 청년 세대로부터 반중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지 물어야, 그것의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중·일 3국의 청년 세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한 불안정 고용과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겪고 있다. 2008~9년 세계 경제위기 이전까지 일본-한국-중국 간에는 발전국가로의 성장이 이뤄진 시간적 배열에 따라 사회 변화도 시차를 두고 벌어진다고 인식됐지만, 오늘날에는 실업 문제나 이민자에 대한 배외주의 정서 등에 있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의 동시성이 형성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3국은 신흥개발국가의 발전주의적 경제성장 경로를 거쳐 경제 규모를 키워왔으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와 가치사슬(value chain)이 공고하게 형성된 이후 위기는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냉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이행하며, 산업 자본 중심의 발전에서 금융 자본 중심의 발전으로 성격을 변화시켜왔다. 발전국가모델 하에서 내셔널리즘(nationalism; 國民主義)은 중산층 확산과 고도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공유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모델에서는 중산층 역시 양극화되고, 노동시장이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사회 전체가 개인주의화된다. 다카하라 모토아키(高原基彰)에 따르면, 기존 발전국가모델에서 작동하던 고도성장형 내셔널리즘은 실효성을 잃고,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 성격을 갖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버블 경제가 몰락하고 '잃어버린 20년'을 경과하면서 이른바 '프리터(フリータ; freeter)'[9]와 '니트(NEET)족'[10], '사축(社畜)'[11] 등 노동시장의 변화된 특성을 띤 현상들이 대두되었다. 진보적인 전공투 세대의 사회운동 주도성이 상실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단카이세대와 청년 세대 간 사회 인식이 분절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7년 '88만원 세대론', 2010년 '헬조선', 2012년 '열정페이' 등 조어

9)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본의 조어. 평균 연령은 15세에서 34세로, 1990년대 버블경제의 몰락 이후 장기 침체가 도래하자 그 의미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

10)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또는 Training"을 나타내는 약자다.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자인 사람을 가리킨다.

11) 회사(會社)' 와 ' 가축(家畜)' 의 끝 글자를 합쳐서 만든 조어. ' 회사에 길들여진 가축' 이라는 의미로, 회사가 하라는 대로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직장인에 대한 자조적인 풍자가 담겨 있다.

들을 통해 유사한 인식론적 분절이 등장했다.

과거 60년대 일본이나 80년대 한국의 청년 세대는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학생운동을 거치면서 내셔널리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회구성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대안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일정한 '주체화 양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좌익 운동이 몰락하고, 한국에서도 사회운동이 체제내화되면서 이러한 주체화 양식은 점차 위축되거나 소멸되어갔다. 한국 사회운동의 경우 통치 이데올로기가 강압적인 군부 독재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호도된 개혁 방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의제설정 능력이나 정치적 비전, 가시적인 조직력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1970~80년대 프랑스 사회당과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등 서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집권 이후 오히려 초국적 금융 자본의 압력에 밀려 노동자 계급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행하는 흐름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뤄질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시행 등으로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서도 반대 투쟁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대안 사회의 상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더군다나 한국 제도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던 민중운동은 내부의 정파 갈등 문제로 사분오열되어 침체기를 겪었고,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던 대안 정치 세력은 사회변혁의 추동력을 상실했다. 오히려 사회운동 일부가 기성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탁함으로써, 게토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스스로를 제3의 대안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싹마저 잘라버렸다.

일본의 'NEET族'이나 한국의 '88만원 세대', 중국의 '캥거루족(啃老族)' 등을 둘러싼 논의는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양상을 드러낼 뿐, 근본적인 원인을 가리킨다고 말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88만원 세대'와 같은 세대 착취 담론은 계급모순을 세대담론으로 부정확하게 전유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호명이 되는데 실패한다. 다카하라 모토아키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한국에서 고조된 민족주의 감정 역시 상당부분 고도성장형 내셔널리즘이 아닌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과 능력주의의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이 고양된 시기에 청년 세대는 인터넷을 전형으로 하는 뉴미디어와 도시 소비문화와 하위문화를 근거지로 삼고, 반(半)유희적인 정념의 움직임을 가시화한다.

모든 국가와 사회에는 그 사회 내부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한다. 한 사회에서 내셔널리즘은 내부의 모순이 기존의 제도 정치와 통치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변혁의 경로가 차단되어 있을 때 대두된다. 미래(현재)에 대한 불안감을 외부의 적 때문이라고 표적을 돌리고, 내부의 불만을 완화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셔널리즘에 대해 단순히 "내셔널리즘은 나빠!"라고 외치는 것은 "반민족 매국노 규탄"이라는 구호만큼이나 내셔널리즘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적실한 대응이 될 수 없다.

연결과 연대를 위해

오늘날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은 국경에 온전히 구속되지 않는 다양한 연결성을 보인다. 금융 자본주의와 불평등, 불안정 노동의 시대에 양국 청년들이 겪는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일과 삶에서의 성차별과 불안, 플랫폼 자본 하 가려진 노동의 현실, 저임금과 취업난 등 양국 청년 다수는 유사한 현실 모순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경험은 개별 영토에 고이지 않고 지구 곳곳을 가로지르며, 세대 갈등이나 가부장적 모순, 노동 착취 역시 첨예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가령 장시간 노동 문제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수년간 정치 쟁점이 되고, 청년 세대 불안의 주된 모순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정권 시기 주52시간으로 연장 근로 시간의 법적 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장시간 노동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IT업계의 '996制' 철폐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온라인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한때 개혁개방 40년사의 영웅으로 추켜세워지던 자본가 마윈(马云)도 996제에 대한 실언을 해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차별과 직장 내 성추행 문제 역시 양국 모두에서 큰 화두이다. 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METOO 운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노동 문제와 여성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이해관계와 여성 노동자 일반의 불만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18년 이래 대학가와 일터, 연예계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왔으며, 온라인상에서 광범한 주체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대적 모순에 대한 동일성을 확인하고, 동일성 가운데서도 각 사회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동반하여 드러나고 있는지 폭넓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취업난이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미래에 대한 불안 정서 등 억압이 국경을 넘나들며 하위계층 모두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자각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중국 때문" 혹은 "일본 때문", "한국 때문"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대중적 인지는 국가나 민족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자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경계 바깥에 대한 적대를 각국 내부의 모순에 맞선 연대, 새로운 주체화 양식을 발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중 청년들의 연결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우선, 잘못된 전달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 공신력 있는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교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본질적인 모순과는 거리가 있지만, 오인과 가짜뉴스가 양산하는 반중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12]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하남석·김명준·김준호(2021) 역시 "한·중 양국 간 허위보도 불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치 종주국 논쟁이나 샤이닝니키 등 게임 문제를 비롯해 (…) 양국 미디어의 허위보도나 사실 확인이 잘 되지 않은 루머 보도로 인해 한·중간 온라인 갈등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양국의 상업 언론사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주류 입장이 아닌 인터넷의 일부 악플러 댓글을 과장해 기사화하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미처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기사가 "양국 네티즌들에게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들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13]

2020년 11월 발생한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는 한·중 간 인터넷 민족주의가 가짜뉴스에 의해 부정적으로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2020년 11월 1일 올드시엔(Old先)이라는 'BL물'[14]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갓'을 쓴 남자의 그림을 올렸는데, 그러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트위터 유저가 "저 갓은 한국 모자다"라면서, "출처를 대라"고 요구한다. 이 일이 중국 쪽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갓은 원래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작가의 트위터 자체가 싸움판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작가는 자신이 그림 그릴 때 참조한 자료를 공개하는데, 중국의 전통복 패션쇼나 명나라 시기 그림, 대중영화 장면 속 갓 이미지였다. 한데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11월 2일 샤이닝니키를 제작한 중국 게임사가 한국 서버 런칭기념 이벤트로 한복을 출시한다고 밝힌다. 이는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던 이벤트였는데, 하루 앞서 트위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한복 문제 관련 과열돼 있던 중국 유저들이 웨이보와 트위터에서 "해당 한복이 명나라 의상과 비슷하다", "한국만의 고유 의상이 아니다", "한푸를 왜 한복으로 내느냐"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 증폭된다. 사소한 논쟁이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인터넷의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이틀 후인 11월 4일, 샤이닝니키 제작사는 "매우 죄송하고, 한국 서버의 유저가 조국인 중국을 욕하면 한국인 유저들을 채팅 금지, 계정 정지를 시키겠다", "앞으로도 중국의 전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공지하였고, 이번에는 한국 유저들이 공식 카페에 가서 한국어로도 사과문을 올리라고 항의하며, 중국에 대해 비난한다. 다음날인

12) 홍주현· 설진아· 이종임의 연구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중국관련 허위정보 확산에 관한 연구: 확산 주체와 정보유형 분석을 중심으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상에서 중국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증 허위정보는 긍정적 콘텐츠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코로나19 중국 관련 유튜브 콘텐츠 영상들은 개인 유튜버가 제작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나,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가 이뤄지지 않은 허위정보였으며, 부정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에 비해 약 3배 이상이나 많이 생산되었고 확산되었다.

13) 하남석· 김명준· 김준호, 상동

14) 보이즈 러브(Boy's Love)의 약자로, 남성 캐릭터 간 연애를 소재로 다루는 하위문화 팬픽 장르이다. 동아시아에서 인터넷 하위문화의 한 양상으로 널리 퍼져 있다.

11월 5일, 게임회사는 한복 아이템 전량 회수 및 보상을 공지하고, 이후로 갑자기 시스템 점검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결국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고, 한 달 후인 12월 9일 서비스가 공식 종료된다. 사실 한복(韩服)과 한푸(汉服)는 다르고 또 같다. 지난 2천 년 동안 동북아시아 민중은 무수한 교류를 거쳤고, 그 때문에 많은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갓'을 두고 한국 것이니, 중국 것이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다. 고대사의 문제에 대해 근대국가의 기준으로 논쟁하는 일에 휘말려선 안된다. 고대에는 국가 간 경계가 모호했고, 기준도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다. 역사나 전통, 문화에 있어 상호 비슷한 부분을 통해 더 많이 대화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낳은 역사에 대해 토론하며 교류해야 하지, 기원을 따지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 실제 갓과 같은 형태의 동양 전통의상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비슷한 부분이 있다. 고구려 감신총 벽화(4~5세기 추정) 속 패랭이갓을 쓴 인물, 6세기 신라 금령총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신라 원성왕(8세기 말)이 꿈에 복두를 벗고 소립을 썼다는 삼국유사 기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해져 고려 시기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온 이후로는 몽골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모양이 점점 변한다. 당나라 태종 시기에도 멱리(冪羅)라는 모자가 있었다. 멱리는 본래 서북방 민족들이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얼굴과 전신 가리개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궁중의 여인들과 왕공의 귀부인들에게 유행되면서 외출 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좀 더 과감하게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른바 '노계(露髻)'가 유행해서 당시 여성들은 가마를 타지 않고 말을 타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남장을 즐겨 입는, 개방적인 패션이 유행했다는 사실이 『구당서(舊唐書): 여복지(輿服志)』에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서북방 민족'이란 칭하이 호수 서쪽에 있던 토욕혼(吐谷渾)국을 지칭하는데, 토욕혼은 원래 선비족 일부가 서쪽으로 밀려나서 만든 고대 유목국가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갓은 유목민 복장이 농경 사회에 전해지면서 변모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갓의 기원을 굳이 따진다면 선비족을 포함해 고구려 등 북방 유목민들이 말을 타면서 모래바람을 차단하고자 착용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갓의 기원을 두고 '중국 역사의 산물'인지 '한국 역사의 산물'인지 시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점에서 "古风混搭(고대 스타일의 mix and match)"[15]라고 답한 올드시엔 작가의 답은 꽤나 현명한 대답인 셈이다.

둘째, 양국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일종의 공공외교 전략으로서 '소프트파워(soft-power)'를 부각시키는 문화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1997년 이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해온 한류(K-POP; 韩流)는 어떤 의도된 정책의 산물은 아니지만, 확산과 심화의 과정을 볼 때 "문화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고, 문화를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민족주의

15) https://twitter.com/old_xian/status/1322874833915445248

가 내재"[16]되어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민중 저변에서는 여전히 저항적 민족주의 성격을 띠었으나, 국가권력에 의한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콘텐츠산업'을 사용하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세계5대 콘텐츠산업 강국'을 목표로, 국가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작금의 한류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주의적인 기획의 산물인 셈이다. 문화산업은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산업 논리로 무장(武裝)했는데, 특히 K-POP의 아이돌 양성 시스템은 "20년에 걸친 공세적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반영"한다. 많은 논자들이 "K-POP은 스테로이드제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소비자들을 맛있게 유혹하고,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17]고 비판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역 수준에서 보다 실체적이고 첨예한 특수문화들 간의 새로운 문화갈등이 민족국가들을 중심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자신의 민족문화를 자본화하고 산업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대중의 문화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 동아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비슷한 모순을 마주하고 있으며, 동일한 억압과 착취 양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되게 미디어 혁신[18]이 필요하고, 지식계가 공유하고 있는 구조적인 분석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을 외면하지 않은 채, 교육 공동체와 대중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점을 넓히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더 많은 인적 네트워크와 마주침이 기획되어야 한다.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청년들의 마주침을 조직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사업들을 기획함으로써 약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디아스포라 적 존재로서의 성장을 이루고, 한국 사회 모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청년들 역시 중국인 친구를 통해 심원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중국인들에 대해 한국 청년들이 갖고 있는 단편적 형태의 이미지는 이러한 마주침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친구 유무에 따른 호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외국인 친구가 있을 때 해당 국가에 대해 더 우호적이었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 친구가 모두 있는 경우, 한쪽 국가의 친구만 있거나 중국·일본인 친구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 역시 확인된 바 있고, 반대로 외국인 친구가 없으면 중국·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극히 낮았다. 또, 이념은 오히려 대외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19]

16) 박정수, '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문화갈등: 한중(韓中) 간 한류와 반한류의 사례분석', 『中韩研究』 제37권 제1호, 2013년 봄.
17) VALENTINA PEGOLO(University of Oxford), How K-Pop's Record Labels Exploit Its "Idols", Jacobin magazine
18) 안해준, ' 혐중 부추기는 언론, 무엇을 기대하나', 더피알, 2020.2.4.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과 국내 청년의 마주침의 경우,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기업, 외교부서에 의해 주도되거나, 지극히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유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비영리 민간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관계맺음이 이뤄져야 깊이 있는 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으며, 가치관의 교류 역시 도모할 수 있다.

하남석·김명준·김준호(2021)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중 교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에 소속된 주요 인물들이 전직 고위관료나 전직 기업가 출신으로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치중할 뿐이었다. 즉, 다양하고 진지한 주제와 콘텐츠를 구비하고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시민단체들은 "중문판 웹사이트 구축과 중국어 번역 서비스", "중국 시민사회와의 정기적인 포럼 개최" 등 사업을 통해 온라인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베이징과 광저우 등에 위치하며 수년 동안 대안적인 청년문화운동을 이끌어온 706청년공간(706青年空间)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와 마주침이 기획될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증명한 중요한 사례이다. 2012년에 수십여 명의 공동 발기인들이 기금을 모아 설립된 이 공간은 청년들이 대도시의 소비문화와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치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필자가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베이징 706청년공간은 우다커우(五道口)의 화칭자위안(华清嘉园)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데, 청년들의 공동거주 공간이자, 문화·학술·예술 공간이었다. 테마별로 분리된 공간들 중 학술 실험실에선 강좌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세미나를 기획해 열기도 한다. 문학테마 실험실에는 소설과 시 등 문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문학 토론회나 시 낭송회를 연다.

> "구성원 중 Mylikes는 스스로를 '전형적인 방구석 프로그래머'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실존주의 철학서《아웃사이더》나, 신경과학, 후성유전학을 함께 논할 친구를 찾았습니다. 최근 UCLA의 미디어예술대학원에 지원한 저우챠오(邹俏)는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룸메이트 여우양(悠洋)과 뉴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우양은 영국왕립예술대학를 졸업해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리학 연구자 짜오펑(赵鹏)도 있습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물리학 박사과정으로 연구 중인 그는 최근 이곳 학술테마 실험실에서 이론 강좌를 열기도 했죠. 옌펑(艳鹏)도 그처럼 강좌를 개최한 구성원 중 한 명입니다." – 706청년공간 홍보 문구 중

706공간의 거주자들은 각 공간에서의 교류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을 오가며 교류하기도 한다. 문학 실험실의 문학 살롱에 참여하고, 음악 실험실에서 함께 음악을 듣기도 하며,

19) 하남석· 김명준· 김준호, 상동

영화테마 생활실험실에서 상영회를 기획한다. 거주자들 중엔 프로그래머 · 뉴미디어 종사자 · 다큐멘터리 촬영기사 ·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이 있고, 이들의 취미 역시 명상 · 요리 · 디자인 · 히피문화 등 다양하다. 생활 패턴 역시 낮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밤 새워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다.

넷째, 디아스포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노동과 기후정의 등 민족성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갖출 때, 비로소 '연대'의 지평도 열린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동력의 국제이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난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력이 유입되었다. 초기 산업연수생제도는 제도적 한계 및 관리체계의 부재에 사회의 편견이 결합되어 극도의 차별과 착취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한때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운동은 단순히 인권 침해 감시를 넘어, 이주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와 저항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주민 역시 동정적이거나 시혜적인 '주변부 노동자'가 아니라, 정치적 주체라는 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조력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 운동의 분화 과정을 보면 정부 정책보다는 이주노동자 내부의 단체들 간 대응 전략이나 신념의 차이, 민족들 간, 국적별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운동과 이주민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은 이러한 민족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가령 이주노동자 운동은 네팔·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나 필리핀·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주축으로만 이뤄져왔다. 실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이주노동자 권리 신장이 중국 출신 시민들의 노동권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중국계나 조선족 권익단체 활동에 국한되어 왔다. 이런 경계를 뛰어넘어야 디아스포라들의 보편성을 담지하는 흐름이 한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일(노동)과 삶, 교육의 문제를 이주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제기하고, 이를 다시 제도화할 수 있는 폭넓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주민 집단의 국적별 대응보다는 보편성을 매개로 한 정주민-이주민의 연대가 가장 효과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국제주의적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에 따른 불평등, 전쟁 등 국가폭력이 고조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위와 같은 단편적인 노력들만으로 배외주의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동아시아(혹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테면 불안정한 노동 문제에 대한 노동권의 신장, 이주민들이 맞닥뜨린 차별에 대한 정의,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대안을 확산하는 것 등은 동아시아 각국 청년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함께 요구할 수 있는 문제다. 노동권에 대한 공격, 이주민 차별, 기후위기 확산 등에 있어서 한국·미국·중국 정부 등은 국가권력이나 국가권

력 상층부의 엘리트들이나 자본의 편에 서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세계)를 관통하는 개별불안형 민족주의적 대립에는 사회유동성의 증대와 더불어 국내에서 불만을 쌓아가는 통치 엘리트들이 이를 '역사 문제'라는 형태로 거짓되게 문제화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주의 틀을 넘어서는 보편성으로 문제의식과 실천을 확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상상해보자. 지난 4월 4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56차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전 세계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43%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준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경우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 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는 IPCC 보고서의 경고에 조응하는 수준의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로서, 기후위기에 책임있게 대응해야 할 대국으로서 IPCC 보고서의 문제의식에 조응하는 계획에 미달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는 이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양국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방관하고 있는 양국 정부와 기후악당 기업들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과 행동이 아닐까? 이와 같은 기후위기나 내 노동의 불안정성 등을 진정으로 복기하면, 반중 감정이나 반한, 반일 감정은 너무 우스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삶과 미래를 규정짓는 기후위기, 이주민 차별,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전을 공유한다면, 한국·중국의 청년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청년 세대의 연결과 연대를 위한 새로운 지평은 이런 공통성을 통해서만 열릴 것이다. 국경을 경계로 한 반대 정서를 극복하고 국제주의적 시야와 실천하는 문제는 '누구의 것도 아닐 때, 모두의 것이 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이오성,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시사IN〉, 717호, 2021

LAURA SILVER, KAT DEVLIN AND CHRISTINE HUANG, 'Large Majorities Say China Does Not Respect the Personal Freedoms of Its People', Pew Research Center, 2021

김용호·김윤호,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인식의 지평 확대', 아시아 브리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

하남석·김명준·김준호, '한국 청년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 현대중국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Kimmy Yam, 'Anti-Asian hate crimes increased 339 percent nationwide last year, report says', NBC

오수진, '[아시안 혐오] ① 경제력으로 줄 세우고 혐중 당연시', 연합뉴스, 2021.05.19.

박민희, '한국과 일본 반중정서의 양상과 원인 : 사회·문화·역사', 현대중국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홍주현·설진아·이종임,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중국관련 허위정보 확산에 관한 연구: 확산 주체와 정보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박정수,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문화갈등: 한·중(韓中) 간 한류와 반한류의 사례분석', 『中韩研究』제37권 제1호, 2013년 봄.

VALENTINA PEGOLO(University of Oxford), How K-Pop's Record Labels Exploit Its "Idols", Jacobin magazine

안해준, '혐중 부추기는 언론, 무엇을 기대하나', 더피알, 2020.2.4.

04
2022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주제토론

지금,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여신(대진대 중국학과 초빙교수)

두 발표문은 한·중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혐오 정서에 관하여 예리한 통찰과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연 선생님은 중국 청년세대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홍명교 선생님은 한국 혐중 정서의 심층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요 연구 대상이 다르지만 두 발표자 모두 한·중 청년세대의 공통점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발표문의 유익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토론자가 인상 깊게 읽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상: 혐오와 대립

오연 선생님은 오늘날 중국 청년세대의 특이점 중 하나로 '팬덤 민족주의(fandom nationalism)'를 꼽았습니다. 이것은 홍명교 선생님이 제시한 한국 혐중 여론의 외부요인 중 하나인 '당-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노선'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초기의 '아중 오빠 지키기'나 〈그해, 그 토끼〉의 시청자 반응, 또는 이른바 '소분홍'들이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왜곡된 애국주의적 행태는, 겉으로 보기에 국민의 자발적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교육,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선전, 거대한 국가권력과 자본의 결탁, 하위문화의 주류 편입 욕구 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 정서에 사로잡힌 대중이나 '소분홍'을 비롯한 과격한 애국주의자는 사실 국가권력의 억압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인 결과물입니다.

'팬덤 애국주의'는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오연 선생님은 한국에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팬덤 민족주의'가 국가에 대한 것인 데에 비해, 한국의 '팬덤 민족주의'는 아이돌이나 유명인에 대한 팬덤이 우회적으로 국가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치,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 역시 일종의 팬덤 민족주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조회수와 지지율 올리기에 혈안이 된 상업 미디어와 정치인의 부추김에 의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중갈등의 구조를 지극히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애국주의 간의 대립입니다. 이런 애국주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며, 사회구성원에 의해 내재화한 감정 이데올로기로 인해 더욱 격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연 선생님도 언급했듯이, 지금의 '한·중갈등'에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혐한'이 '혐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것은, 그것이 '혐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혐한'의 미지근함은 오히려 한·중 간 감정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중국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복 논란'과 '김치 논란'은 분명 상업 언론에 의해 확대해석된 것이지만,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은 중국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국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겠지만, 문화를 공유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결여한 것이 화근입니다. 소극적 인정은 때로는 적극적 부정으로 오인될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파오차이와 조선족 복장을 다룰 때 한국인의 감정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면, 논란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원인: 불안

두 발표자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처럼 한·중갈등의 뿌리에는 '불안'이라는 공통요인이 있습니다. 오연 선생님은 다카하라 모토아키의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 개념을 빌려와 팬덤 민족주의를 설명하면서, 그 근저에는 '아이돌과의 자기 동일화를 통한 대리만족', 즉 인정욕구가 내재해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수반된 고용의 불안정화와 복지의 축소, 자유의 증대와 선택권의 감소, 그리고 공동체의 소멸과 사회 구성원의 파편화 등이, 현실적 만족을 불가능하게 했기에 대리만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홍명교 선생님 역시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 개념을 통해 한국 청년세대의 혐중 정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한발 앞서 신자유주의를 경험한 한국의 청년들 역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내부의 불안을 외부의 적 탓으로 돌림으로써, 내부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대한 혐오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왜곡된 애국주의가 한국의 혐중 정서를 야기한 외부요인 중 하나임을 상기하면, 전자와 후자 모두 '불안'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한·중갈등은 신자유주의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두 그루의 얽혀 있는 나무이며, 이 혐오 전쟁의 용병으로 동원된 청년세대 중 누구도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홍명교 선생님

의 지적대로, “진정한 문제는 각 사회 인민이 타국민을 적대화하도록 내몬 시스템 자체”이고, 그 시스템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누구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해법: 소통과 연대

신자유주의라는 거시 구조적 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발표자는 각각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연 선생님은 상호 간의 “진정한 대화”를 강조하며, 진정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자기 성찰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상대방과의 대화에 앞서 자기 내면과의 대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도 이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편, 홍명교 선생님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협업과 더불어 양국의 인적 교류 증대를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특히 홍명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국제주의 의식’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민족이라는 것이 상상된 공동체에 불과하고, 국가 역시 지구상의 수많은 공동체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민족국가라는 체제는 당연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국가와 민족에 기반한 증오와 갈등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홍명교 선생님의 주장대로, “우리 삶을 규정짓는 기후 위기, 이주민 차별, 노동권 침해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새로운 연대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들

한국 사회에 그동안 존재해 온 수많은 혐오 표현들을 떠올려 본다면, ‘짱개’나 이보다 심한 ‘착짱죽짱’도 그저 ‘한남’, ‘꼴페미’, ‘된장녀’, ‘맘충’, ‘틀딱’ 등 수많은 혐오표현들 중 하나일 뿐이며, 중국/중국인 또한 수많은 혐오의 표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중국/중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혐중’의 배후에는 합리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혐중’은 여타의 혐오 마케팅에 비해 윤리적 비난의 대가가 훨씬 적기 때문에, 주도하거나 동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혐오’가 윤리적 비난을 받는 주된 이유는 ①혐오 대상의 사회적 소수자 신분과 ②혐오 대상이 받을 정신적 트라우마입니

다. 중국의 경제 대국 위상과 요우커, 유학생을 비롯한 일부 재한 중국인의 높은 경제적 지위는 혐오 대상을 '약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에 타당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혐중'의 표적은 여타의 혐오 대상에 비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혐오가 야기할 정신적 상처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되어 나타납니다. '사이버 렉카'의 혐오 콘텐츠 때문에 자살한 BJ나 악플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과 달리, 혐중 때문에 자살할 중국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이라도 '죽음'이라는 커다란 비극 앞에서 윤리적 비난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혐중'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으면서도,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인 셈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경계를 짓고 '그들'을 열등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들'의 열등성은 혐오를 재생산하고 증오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타자의 열등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우월성을 증명하고픈 무의식적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되묻어야 합니다. 타자와 대비되는 '우리'의 우월성은 우리를 불안감에서 잠시나마 탈출시키고, '우리'의 위태로운 자신감을 되찾아 주기 때문입니다.

타자화와 혐오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것의 가장 폭력적인 형태는 식민주의적 인종차별과 여성 차별이며, 그 근저에는 '권력'이라는 공통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중갈등 문제를 다룰 때 앞에서 언급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거시적 층위에서는 여러 권력 간의 역학관계를, 미시적 층위에서는 개개인의 심리적 기제도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연결과 연대보다 성찰과 반성이 먼저

김천웅(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수료)

〈한·중 MZ세대, 연결과 연대의 새 지평을 향하여〉라는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오연, 홍명교 두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장기간 이슈로 떠올라서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제는 이번 대선에서 모 정당이 쏘아 올린 두 개의 작은 공 - 세대 담론과 혐오 담론을 모두 섭렵하였기에 저는 이런 표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당의 당 대표는 '세대 포위론'을 주창하면서 2030세대를 지지층으로 만듦으로써 기존 지지 세력이었던 60대와 함께 4050층을 포위한다는 선거 전략을 내세워 한국 국내의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이 당의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들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중국인,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고, 양국의 혐오 정서를 더 거세게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한 양국의 청년들이 불신과 증오를 넘어 연결과 연대의 새 지평을 희망하는 이번 토론은 그 의미가 더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토론을 주최한 다가치포럼 운영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경의와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가 학부를 졸업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bilibili라는 동영상 사이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오타쿠'들의 집거지라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지금은 중국의 youtube라 불릴 만큼 모든 문화와 연령층을 아우르는 거대 규모의 사이트로 등극하였습니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주 연구 방향으로 하고 있는 저는 bilibili의 급속한 발전을 단순히 자본 구조의 변동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현재 중국에서 포스트 8090년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였고, 그들은 이차원문화를 향유하는 주체이기에 이 사이트가 자본의 선택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던 중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교양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중국 이야기'를 주제로 중국 청년, 특히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쥬링허우'들의 애국 행위에 대한 분석을 시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분석이라고는 했지만, 일반 시청자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라 너무 깊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 교수님의 이 발표문

과 함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언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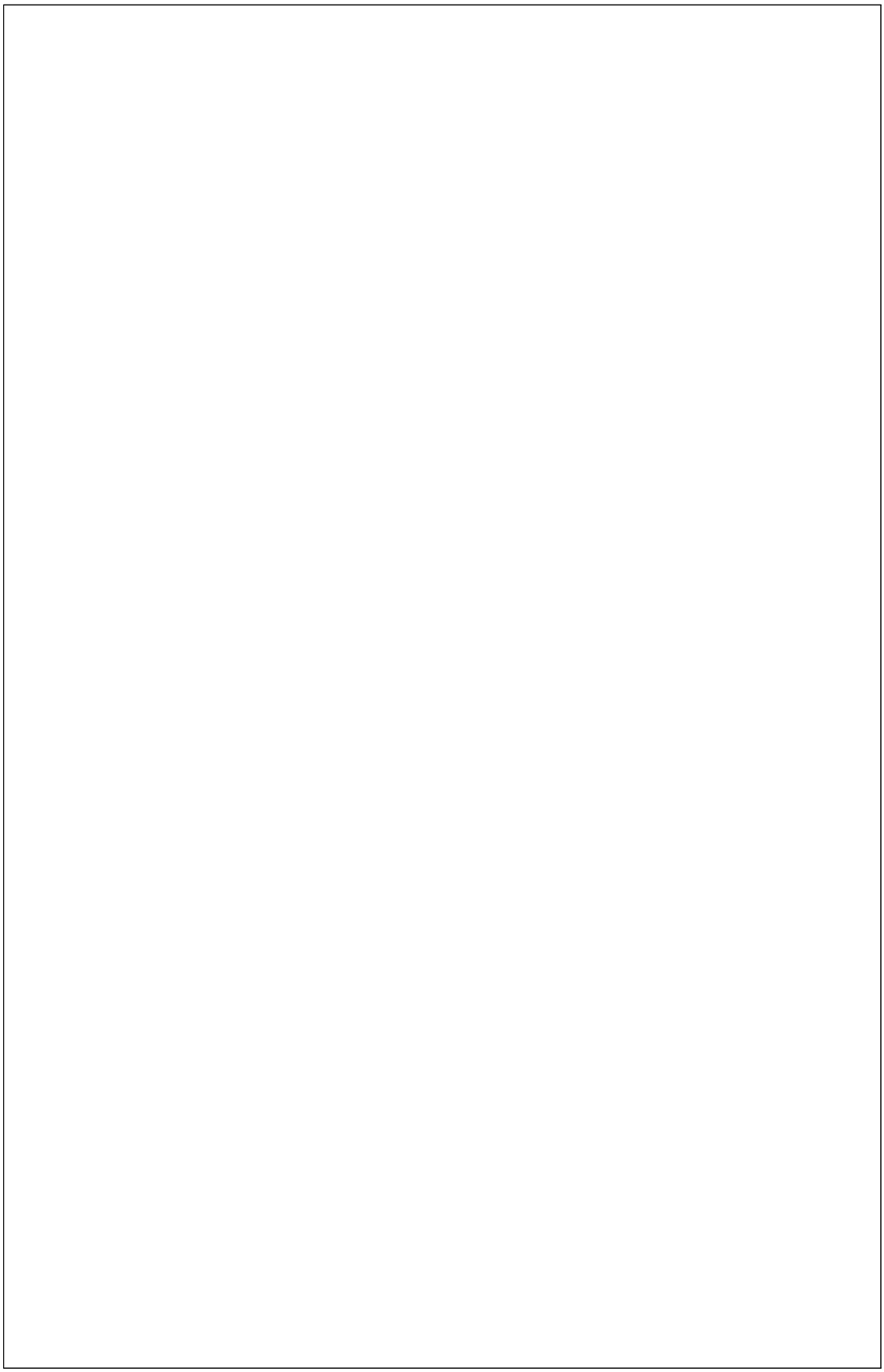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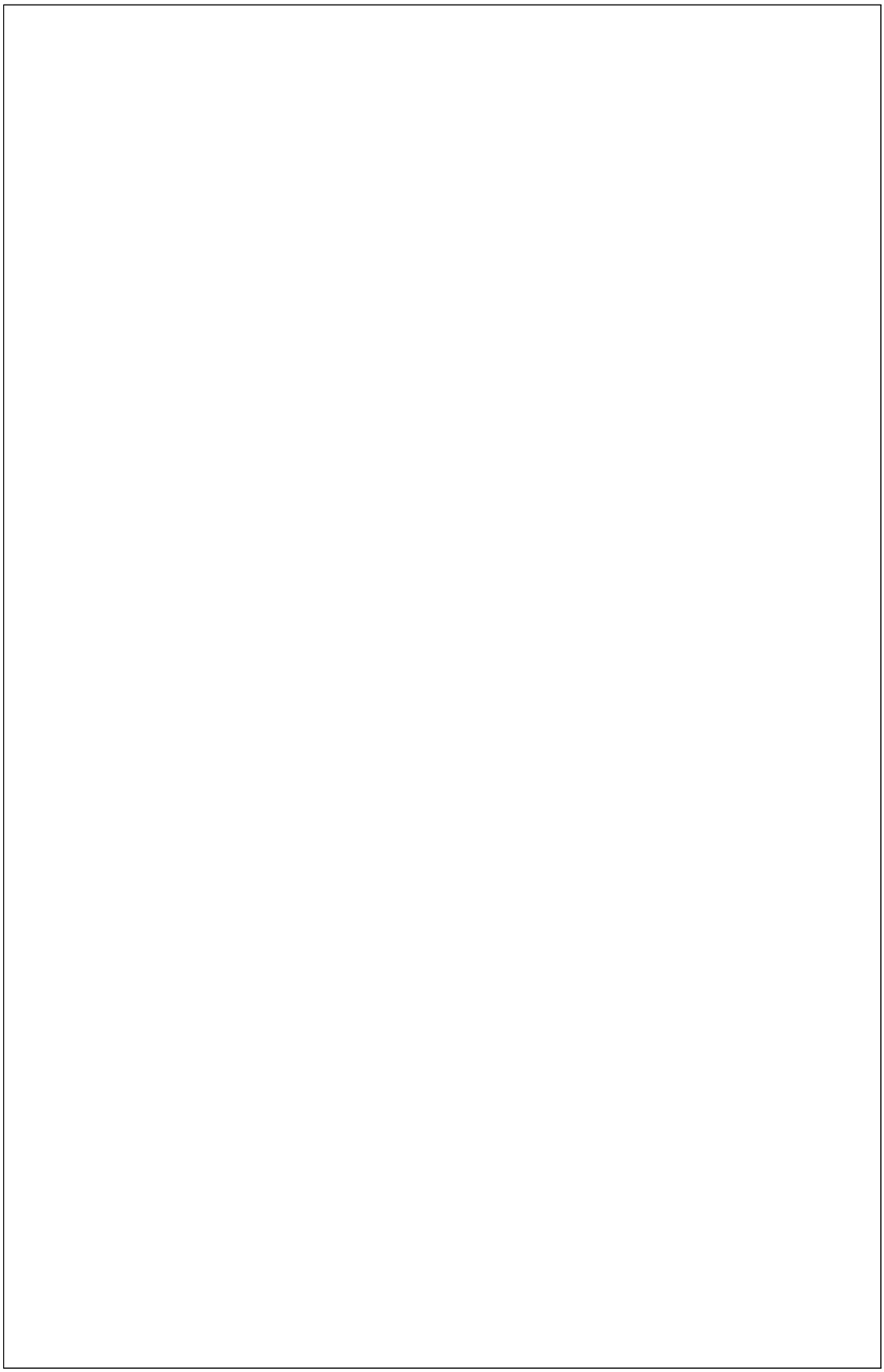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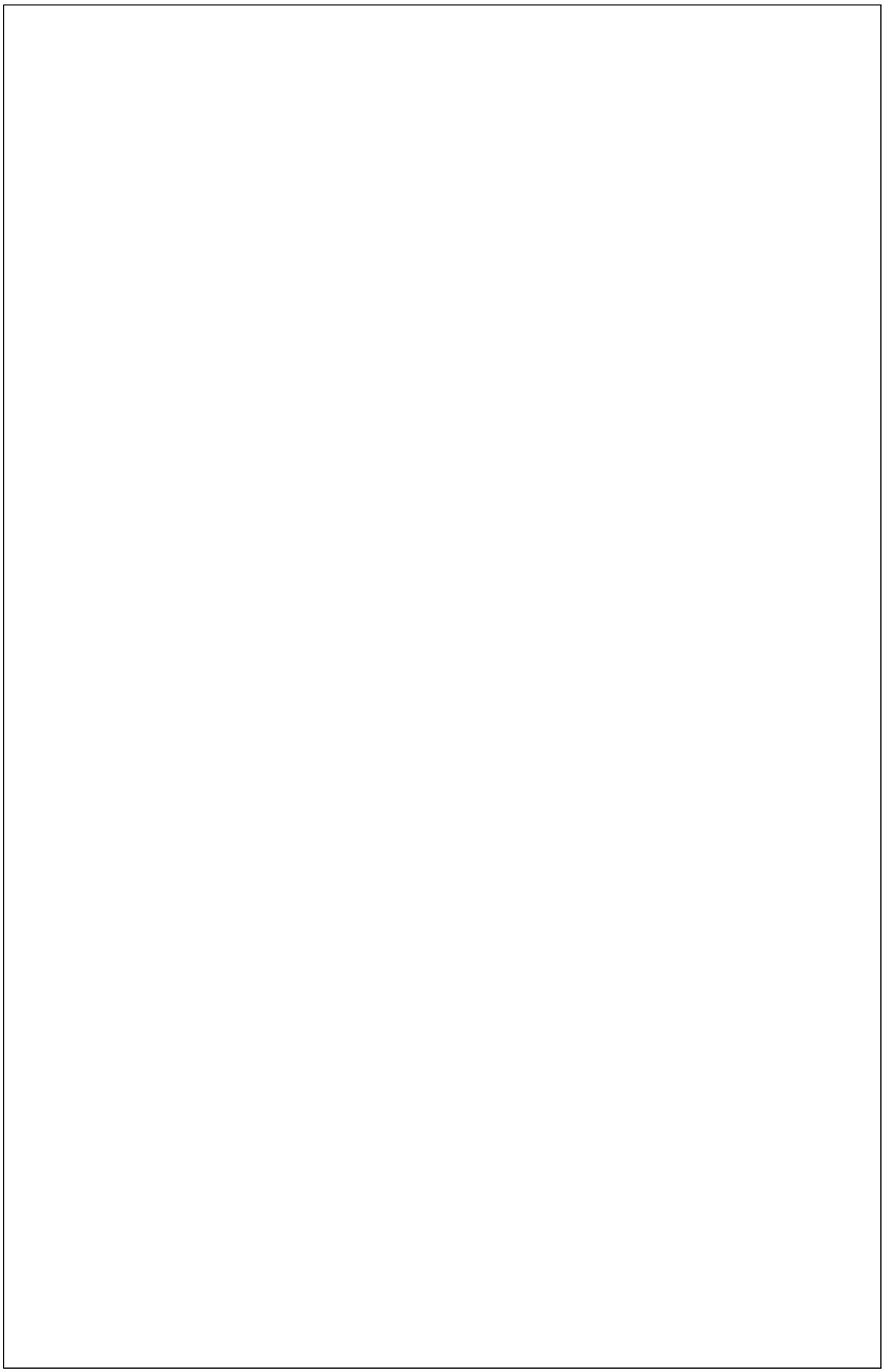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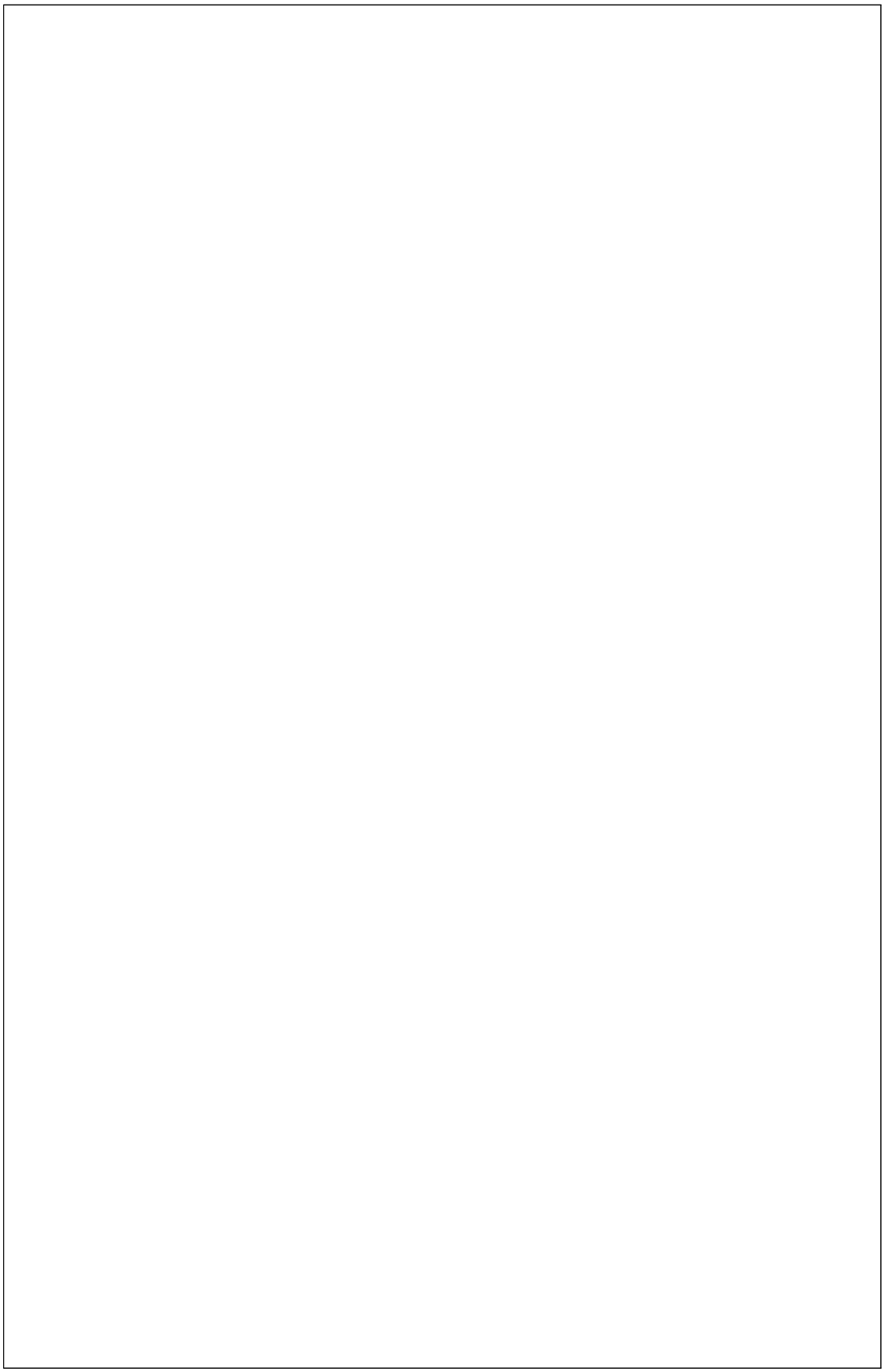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오 교수님은 일본의 오타쿠 문화의 출현과 그 문화의 중국으로의 유입, 또는 중국에서의 이차원문화의 출현 배경이 비슷함을 언급하시면서, 그 배경은 불안정한 사회라고 꼽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문화적 실천이 오타쿠 문화 또는 이차원문화를 잉태하였고, 주류문화가 2차원적 표현을 포용하고 적극 활용하자 소외집단은 사회적 존재가치를 재차 인정받고자 주류가치 중 대표적인 애국주의를 하나의 구별 기호로 이용하여 자신들도 주류계층과 같은 가치 추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팬덤 민족주의'이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회적인 분열과 국가 간의 혐오가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박하고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명교 활동가님의 발표문 또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중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모두 외부적인 요인만을 다뤘을 뿐 더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이에 홍 활동가님께서는 유독 청년 세대의 반중 감정이 심하다는 현상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범세계적 정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좌파 세력의 몰락으로 인한 대안 사회의 해법의 상실 또는 체제 내재화의 결과로, 또 이로 인한 사회 모순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고 있고 국가 간의 갈등으로까지 빚어지고 있음을 한, 중, 일 3국의 사례로 서술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셨기에 비록 갈등의 이유로 체제 내지는 신자유주의의 고착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발표문 중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 기저로 깔려있기에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 모두 중한 양국의 청년들이 공통점을 공유하기에 연대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하셨지만, 홍 활동가님의 발표문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활동가시라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셨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무책임으로 인한 교정 작업에 대한 필요성,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 강화, 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중, 한 청년 간의 민간적 교류 강화, 마지막으로는 이주노동자 운동, 이주민 인권 신장 운동, 기후 위기 대응 등 민족 경계성을 넘어선 디아스포라 단체에 대한 직능 전환과 확장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작년 1년간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라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단체를 이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설립 초반, KCN 선배들께서 한국에 나와 계신 조선족 동포들의 합법적인 거주권 획득을 위해 싸워주신 전통이 남아있어 근 20년의 운영 과정에서 KCN은 모든 세대, 신분과 출신을 아우르는 '중국 조선족' 공동체를 위한 행사를 활발히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조성되고 국가 간 관계가 첨예해지고

있는 오늘날, “중한 친선 및 경제문화 교류”라는 그간 잘 다뤄지지 않았던 설립 취지는 그 언제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의 실천 과정에서 제가 이끌었던 KCN 10기 운영진은 크게 두 가지 난관에 봉착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중한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에는 재외동포재단과의 협력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을 중국대사관 등 중국 측 단체와의 협력을 동등한 비중으로 이끌어 올렸지만, 이것은 한·중 양국의 교류를 위한 대책이 아닌 만큼 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음은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간 KCN이 지성인들의 단체로 자처하면서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단체 내부에서 야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추세를 막고자 조선족 유학생의 대변자에서 조선족 유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채널로의 역할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도 두 선생님께서 모두 언급하셨듯이 불안정한 사회 속에 이념, 이상보다는 직장, 소득, 실적 등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모여지고 있으며, 오 교수님의 주장을 차용한다면, 한국 사회는 물론, 중국 사회에서도 조선족 공동체는 소외 집단으로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갈구하는 이들은,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족 유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 지상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향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공을 위해 팽배해지는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조선족 유학생들은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유창한 서울 말투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류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오로지 개인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제 관찰에 의한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황해〉, 〈청년경찰〉 등 조선족 사회를 ‘악마화’ 한 영화 작품들의 흥행은 재한 조선족 동포사회의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KCN 4기 회장이자 현재 한성대에서 근무하시는 박우 교수님께서는 2011년 당시 영화 〈황해〉에 대한 평가에서, 이 영화는 우리 “조선족 사회의 ‘찌질한 모습’을 제대로 파헤쳐 줬다, 중국에서도 배척받고 한국에서도 때로 멸시당하는 조선족 디아스포라를 묘사하는 예술작품으로 보면 된다.”고 평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재가공 되는 과정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분명 있었겠지만, 이 영화의 타깃 대상인 한국인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 동포사회에도 분명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대로 시사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주류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많은 ‘오원춘’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면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안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나이, 성별, 진영이 분리된, 세계적으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라고 중앙대 독문학과 김누리 교수가 얼마 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연결과 연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내부적인 성찰과 반성이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